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유진수 동문이 문학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홍지민 기자)

"'시'란 고백하고 싶은 것을 외치지 못할 때 우회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창구"

정다연 기자 ekdusgood@khu.ac.kr

"2023 신춘문예 시조 부문 당선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진수(국어국문학 2015) 동문이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된 순간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문학에 관심을 두기 시작해 시창작 특기생으로 국어국문학과에 진학했다. 그리고 신춘문예에 입선했다. 국어국문학과 진학과 신춘문예 당선, 문학도의 정석이 아닐까. 문학도의 길을 걷는 그의 발자취와 앞으로의 길을 살폈다.

끊임없는 도전 속 피어난 「백련의 기억」

'칠전팔기'. 유진수 동문의 신춘문예 도전에 붙이고픈 제목이다. 유 동문은 이번 신춘문예에 당선되기까지 수도 없이 낙선했다. "신춘문예에 거의 매년 지원하면서 정말 많이 좌절했어요. 좌절 횟수가 7번은 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조선일보 기자분이 '당선되셨다고 축하한다고' 말을 들었을 때 제 반응이 어땠냐면요. 감정이 1도 없었어요. 로봇이었던 것 같아요. 담당 기자님은 아무런 기쁨, 슬픔의 감정이 전혀 없는 사람 같다고 그랬거든요."

도전 속에서도 비극은 존재했다. 좌절하고 낙선될 때도 굴하지 않던 유 동문에게도 슬럼프가 찾아왔다. "문학을 더 공부하고 싶어 대학원에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코로나가 터져서 대면 수업을 한 번도 못 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세미나, 합평회를 하지 못하니까 슬럼프에 빠졌죠. 그때는 절대 글이 안 써져서 고민에 잠겨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공모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가 슬럼프였죠."

슬럼프는 시로 승화시켰다고 한다. 이번 신춘문예 당선작 「백련의 기억」을 읽다 보면 당시 유 동문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백련의 기억」은 다짐에 가까워요. 백련을 보고 다시 글을 써야겠다는, 다짐하게 되는 계기를 글로 쓴 거였거든요. 슬럼프가 시조에 녹아 있다고도 할 수 있겠네요. 「백련의 기억」에 보면 '희미한 표정만 남긴 채 수척해진 문장들' 이런 시구가 있어요. 그게 제 상태를 나타낸 말이에요."

유 동문에게 있어 '백련'이란 존재는 다짐과 더불어 그의 꿈이 아닐지 짐작해 본다. "일명 문학청년의 마지막 꿈이 신춘문예잖아요. 문학을 시작하게 된 계기의 꿈과 신춘문예를 도전하고 싶은 꿈, 그 두 가지가 만나 결국 신춘문예에 계속 도전하게 된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일까. 유 동문의 은사 박주택(국어국문학) 교수는 "서정적이고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사유를 이끌며 정제된 견인인식을 보여주고 있어 든든함과 밝은 미래를 살필 수 있었다."는 소감을 남겼다.

일상 속 모습들 글감이 되기도

문인에게 모든 경험은 작품의 토대가 된다고 한다. 글쓰기의 원천을 묻자 다양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해 줬다. "그냥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걸 봤어요. 멋진 풍경도 많이 보고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주거 환경이라든지 기후 환경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세상을 보는 식견이 좀 넓혀지는 게 좋아요. 호주가 기억나요. 그때 화창한 풍경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특별한 경험만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를 스치는 평범한 공간도 유 동문을 거쳐 작품으로 태어난다. 지하철, 미용실에서 감명을 얻었다는 말에 두 공간이 어떤 시로 태어났을지 궁금했다. 두 작품을 보여줄 수 있냐는 물음에 유 동문은 흔쾌히 작품을 보여줬다.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손잡이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의 손과 손잡이가 합쳐져 음계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를 때 머리 자르는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것도 써보면 어떨까 생각했어요. 사람의 뒷모습을 보고 어둡고 우울한 그런 상태의 사람이 또 기운을 차리는."

자유로움 속 시를 쓰는 유 동문은 술기운을 빌려 시를 짓기도 했다. 예'술'과 '술'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하지만 유 동문에게는 예외다. "학부 때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술 마시고 한 번 시를 써봐라. 근데 제가 진짜로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술이 굉장히 약한 편이에요. 음주 시를 한 번 써볼까 해서 술 마시고 한 번 써봤는데 다음 날 제가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한 글이 뭔가 쓰여 있길래 사실 폐기했거든요. 그 뒤로는 음주 시는 안 쓰긴 했어요."

고백 창구가 되는 '시' 독자들 사이 이어주는 통로가 되길

경험은 시의 기틀이 된다는 유 동문에게 있어 '시'란 무엇일까. "독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줘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고백하고 싶은 것 표현하고 싶은 것을 외치지 못할 때 우회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창구라고 생각해요."

유 동문은 작가와 독자의 사이를 잇는 것은 작품이라고 말한다. "문학의 매력인 추상적인 언어, 비유, 상징 등을 많이 포함하되 자기 생각과 느낌, 주제는 명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쓰고 싶은 마음이 커요. 거창하진 않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 유진수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고, 좋은 기억으로만 남으면 좋겠어요."

동물은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했던가. 유진수 동문이 자신의 이름처럼 진실한 사람으로, 좋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길 바란다.